

알과 생각이 부풀어 오르면
감정이 부풀어 오르지요.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우리의 감정도 열리고 열려
곧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그림 유미



글 그림 유희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되어 아이와 그림책을 즐기다 그림책 매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과 좋은 기회를 만나 직접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글빛정보도서관의 안지혜 사서님, 김경원 사서님,
번역박람회 구선미 대표님,
함께 만들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좋은 피드백 주신 동료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풍선은 애절한 감정을 다루는 것이 서툰 아이에게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알려주고,
그 감정이 알려지지게 되어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전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인이 되어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나의 감정을 알아가고 해소하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풍선

초판 1쇄 펴낸날 2022년 12월 1일
글 그림 유희 책판일러스트 김원오
이메일 dipion@naver.com

출판권 2022
이 책의 그림과 글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관공문화재단 글빛정보도서관의 <1권 1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음풍선



글 그림 유희

마음속에는 색색의 풍선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알록달록 하지요.



말과 생각이 부풀어 오르면

감정이 부풀어 오르지요.



감정이 부풀어 오르면



풍선도 점점 부풀어 오르지요.



탁!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풍선이 평하고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 터져도



괜찮아요.



뽕 터지면 웃어도 되요.





평 터지면 용기도 내야 하지요



평 터지면 용기를 가져야 하지요.

마음속에는 색색의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록달록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